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14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발행인 강기훈 /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 편집장 현재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준기획] 》 3면
인성 교육, 올바른 평가의 방향은

[기획] 》 5면
총학생회 '박동', 임기를 마무리하며

[사회문화] 》 8면
방탄소년단 광화문 콘서트

[학술] 》 9면
행정통합의 방향성은

실력과 실행력으로 우리학교의 도약을 이룰 제13대 강기훈 총장을 만나다

학내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선임된 강기훈 총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외대학보에서 강기훈 총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4면에서 계속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우리학교-네이버 클라우드, AI 인재 양성·스마트캠퍼스 구축 협력

우리학교는 지난달 13일 서울캠퍼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및 AI 스마트캠퍼스 구축 등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AI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AI 교육 및 연구 생태계 확산△AI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축△AI 인프라 구축 및 대학 AI 전환 지원△AI 전문 인재 양성 및 산학 인력 교류△AI 중심대학 사업 참여 및 관련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에 AI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AI 전문 인재 양성과 미래형 스마트캠퍼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은 AI 기반 스마트캠퍼스와 미래형 교육·연구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언어△인문△지역 기반의 글로벌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실제 교육과 연구 현장에 활용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네이버 제2사옥인 '네이버 1784'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또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LG CNS, AI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달 17일 서울캠퍼스에서 LG CNS와 AI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학교가 축적해 온 다국어 및 지역학에 기반한 교육 및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대상 사업 실적을 보유한 LG CNS의 기술 및 사업 역량을 결합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AI 전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계약학과 추진을 포함한 △산학 인적교류 및 글로벌 AI 인재 양성△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AI 중심대학 사업 관련 제반 교류 및 성과 공유·확산△AX·DX 분야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 및 정보 상호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해 AI 기술 역량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기술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기존 계약학과와 달리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우리학교 인재상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은 "독보적인 우리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다국어△지역학 등의 글로벌 역량과 LG CNS의 첨단 기술 역량이 결합한다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글로벌 AI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AI 분야 공동연구와 현장 교육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미래 산업 환경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신균 LG CNS 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AI 분야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달 25일 서울캠퍼스 본관 이덕선 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및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생 대상 공동 교과·비교과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 및 재학생 간 협력과 소통 능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간 교류 협력 기반 교육 생태계 강화△전공자율선택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오픈배지 인증△협력형 문제해결 학습 경험을 통한 창의·융합 역량 및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또 3개 대학은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함께 자유전공학부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성과확산 활동을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동대문구 관내 3개 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글로벌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예체능△외국학△인문학△STEM 등 기초 및 교양과정의 상생형 공유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소속 대학의 벽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지역 인근 대학들의 역량을 모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고 문명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간 경계를 넘어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강기훈 총장△김진상 총장△원용걸 총장△전학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김사훈 우리학교 교육혁신원장△정용호 우리학교 혁신지원팀장△박하일 경희대 기획조정처장△이정희 경희대 자율전공학부장△이희정 경희대 교육혁신사업단 팀장△이종환 시립대 기획처장△이영한 시립대 자유융합대학장△김학진 시립대 혁신사업지원팀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했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우리학교 G-RISE 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인재 양성 MOU 체결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과 이윤석 G-RISE(Gyeonggi-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단 단장(이하 이 단장)은 지난달 19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3층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마케팅 실습' 교과목 연계 기업들과 기업 수요 기반 실무형 디지털 마케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실습△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운영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요구를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식에는 이 단장을 비롯해 △㈜매일새옷 서동광 대표△㈜베케이코리아 김현배 대표△㈜브랜드아키텍츠 임준영 대표△㈜한스프롬 한승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학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 실무 역량을 공유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멘토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인턴십 및 채용 연계 협력△현장 중심 실습 및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실제 기업 과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과 인턴십을 강화해 학생들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기업 수요 기반의 실무형 디지털 마케팅 교육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G-RISE 사업단은 경기도 RISE 사업의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일반대학 트랙에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의 물결을 주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대학 내부 변화와 혁신 관리△지속 가능한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발전모델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활동 중이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안홍진 전 삼성·효성 임원, 우리학교에 1억원 기부

지난달 24일 서울캠퍼스를 찾은 안홍진 전 삼성·효성 임원(상경·국통 75, 이하 안 전 임원)은 총장실에서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발전 기금 기부 서명식을 개최했다.

안 전 임원은 삼성그룹 사원 공채로 입사해 그룹 계열사 간부를 거쳐 회장 비서실을 담당했다. 이후 삼성전자 PR 및 광고 담당 상무로 퇴임했고 효성그룹 홍보실 전무를 거쳤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이후에는 인터넷 신문 오피니언타임스 대표이사와 The PR Times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보 및 미디어 분야 전문가다. 안 전 임원은 현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가톨릭문인회 회원△한국문인협회 회원△한국산문작가협회 회원으로서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 전 임원은 우리학교 발전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 기금 1억원을 기부했으며 이와 관련해 안 전 임원은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부금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기훈 총장은 이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귀중한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부 취지를 살려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전 임원은 지난 1997년과 2004년 학교발전기금을 2015년애는 도서관 건립 기금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모교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2026년 FLEX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au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6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 · 읽기	쓰기/말하기
1회	04.30.(목)~05.06.(수)	2026.05.31.(일)	06.12.(금)	07.03.(금)
2회	10.08.(목)~10.14.(수)	2026.11.08.(일)	11.20.(금)	12.11.(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7: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http://flex.hufs.ac.kr (문의) 02-2173-2537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 제16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현마육영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월 25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해 제16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제16기 신규 장학생 4명을 포함해 이번 학기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재단 장학생은 우리학교 재학생이자 2학년 진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의 목적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워 장래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날 행사엔 이성희 재단 이사장(사회·정외 64, 이하 이 이사장)을 비롯해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김강석 대외협력처장△김민정 대외부총장△박중찬 산학연계부총장△신근혜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오주원 현마육영재단 사무국장△이준섭 ㈜현마산업 대표이사△이재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장학생 및 학부모△최철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이사장은 우리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와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한 앤티가바부다 명예영사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덕분에 지난 2002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와 2008년 우리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부신과 ㈜삼우무역 대표이사를 지내며 석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으며 한국수입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99년 자랑스런 외대인상을 수여받고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우리학교 최우수 교수 강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전형적인 모범생뿐 아니라 숨은 재능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는 것 역시 재단 설립의 중요한 취지이다"라며 "장학생들이 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기훈 총장은 "재단 설립 취지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총장으로서 재단의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수여식 이후엔 교수회관 귀빈식당에서 오찬이 이어졌으며 △장학생△재단 및 학교 관계자△학부모가 함께 자리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쳤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인성 교육 상대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대안은

우리학교는 지난해 기존 Pass/Non-Pass (이하 P/NP) 방식이던 인성 교육 교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했다. 대학 인성 교육을 상대평가로 줄 세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본 기사를 통해 △인성 교육 교과목의 변화와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인성 교육 교과목의 변화와 문제점

우리학교는 지난해 1학년 필수 교양이었던 인성 교육 과목의 평가 방식을 기존 P/NP 방식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했다. 변경된 과목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기준 △분노와 용서 인성 교육△사람다운 삶을 위한 관계 △인성 T.P.C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학사종합지원시스템 직원 A 씨는 "지난해 인성 교육을 교양교육체계로 반영하게 되면서 같은 교양교육 영역 내 기존 과목과 신설 과목의 평가 방식을 통일해야 했다"라며 인성 교육 과목의 평가 방식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도덕적 가치를 상대평가로 나열한 성적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문은 지난해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개최한 상반기 정기 공청회에서도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당시 총학은 어문 및 인성 강의의 계량화 문제에 동의하며 타 학교 사례 조사와 설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제는 우리학교 학사 제도 개편 시행과 인성 교육 과목의 특수성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학교 인성 교육 과목 중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는 B 교수는 "해당 강의는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학생이 직접 체험 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강의이다"며 "이런 이유로 처음에 강의를 설계할 때 개인별 학점을 차등해서 부여하는 것보단 참여 정도에 따라 P/NP로 평가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학교 방침에 따라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가 마련됐고 체험 활동 위주의 수업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성 교육 과목 특성상 상대평가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박도순 제1대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교육플러스에서 "학업성적 점수를 올리는 것이 무한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평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성 교육△자기 생활△적성 발견은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다"라며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및 학생들에게도 의문을 야기했다. 상대평가는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 공유보단 학우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이 성적 취득에 목적을 둘 우려가 있다. 우리학교 인성 교양 과목 C 교수는 "인성 교육은 지식처럼 평가되는 대상이라기보다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상대평가로 수치화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이 평가 기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편된 후 차이점에 대해선 "P/NP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는 과제와 참여도를 둘러싼 경쟁 요소가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상대평가 제도가 일정 부분 학습 동기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인성 교육이 지향하는 자유로운 성찰과 진솔한 표현이 다소 위축되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상대평가 제도로 진행한 인성 교육을 수강한 우리학교 재학생 D 씨 또한 인성 교육 수업에서 어떻게 성적을 가리는지 의문을 표하며 "P/NP 제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이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과목들이 선택 교양으로 전환된 만큼 성적을 가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단 교과목 고유의 성격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사 관리를 위한 제도적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측정하는 잣대와 내적 성찰을 돕는 잣대를 분리해 P/NP 제도로의 환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E 씨는 "단순히 이수 요건을 채우기 위한 과목보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제 사회 문제를 체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활동이 더 확대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인성 교양은 성적을 가르는 수단으로서의 과목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학생들의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설해볼 수 있다. B 교수는 체험형 수업으로 개설됐던 인성 교양의 강의 계획과 관련해 "이 과목은 여타 강의와 다르게 설계됐기 때문에 평가 방식도 강의 특성에 맞게 P/NP 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운영된 우리학교 사례뿐만 아니라 타 대학 사례 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평가 지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천대학교의 인성 세미나△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의 인제인성교육△초당대학교의 초당인성교육△평택대학교의 PTU인성멘토링은 모두 졸업요건에 포함되는 필수 교양임과 동시에 P/N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순히 성적으로 줄을 세우기보다 학생의 자발적인 토론 참여도나 성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건강한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후속보도

등록금 인상 협상의 성과와 한계, 다음 과제는

지난 1100호에서는 우리학교 등록금이 5% 인상된 데 대해 다뤘다. 이번 해 역시 학교 본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밝혀 학생들의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인상 반대 입장을 사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3% 인상이 결정됐다. 이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중 최저치로 학교 본부가 통지한 인상 계획 대비 0.89%p 하락한 수치이나 지난해에 이은 연속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 협의 이행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등록금 인상 협의 이행 현황

외대학보가 예산조정팀(이하 예조팀)과 지난해 등록금 인상 이후의 이행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설캠의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의 냉난방기 건물 전체 교체 및 3층 전면 리모델링△국제지역대학원 강의실 빔 프로젝터 전면 교체△통번역대학원 휴게실 및 통역 장비 교체가 실행됐다. 또한 학부생 강의실의 낙후된 시설을 일부 교체했으며 민원 접수 시에도 수시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글캠의 경우 △교양관 전체 화장실 교체△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자연과학관 용수 배관 교체와 외부 도색을 완료했다. 이처럼 이행된 사항들도 존재하는 반면 총학의 요구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항목도 몇 가지 있었다. △고시반 정원 확대△로비 개방 시간 확대△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확대△신규 고시반 개설△휴게 공간 조성△흡연구역의 명확한 분리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또한 존재했다. 예조팀은 이와 관련해서 교개원의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해선 "이번 학기 공사를 시작해 다음 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캠 공학관의 경우에는 1년 연기해 신임 총장 임기 공약인 공학관 전체 리모델링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이행되지 않은 추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하게 언제 실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조팀이 밝힌 예산 배분 기준은 △교수와 교직원 인건비△안전 문제△학생 수업권 관련 문제 등이다. 예조팀에선 부처별 사업 계획서를 받아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조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시설관리팀 등 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황이다. 예를 들어 흡연구역의 경우 예조팀에 따르면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의 민원 등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구비하는 비용 등에서 논의해야 할 점들이 아직 존재한다.

한편 이번 해 인상분 예산안으로는 설캠의 경우 △기숙사 증축△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공사△AI 개발 인프라 구축△HUFS GPT LLM 플랫폼 구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캠 역시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공사△농구코트 보수△냉난방기 공사△잔디운동장 설치가 계획돼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잇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우리학교와 학생들이 진정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양측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창구가 부족하다. 이에 예산 배분 시 학생의 요구 사항이 전달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아직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효용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며 "예산 편성 시 학생들이 어떤 안건을 중시하는지 조사가 이뤄진다면 등록금 인상과 반영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사용과 관련해서 총학과 학교 측의 원활한 합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선례로 우리학교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법임 전임 부담 결정이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79억 원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대해 지난해 납부 고지를 받은 바 있다. 학교 본부 측은 해당 금액을 교비로 우선 납부했으며 이후 재정 운용을 이유로 기채* 발행을 결정했다. 학교 법인이 해당 기채 상환 책임을 법인이 아닌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총학은 법인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 결과 송도캠에 부과된 79억 원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기채의 원리금을 학교법인이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등록금 사용에 대한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발현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확약 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상분 확약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학생 측이 매 학기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캠 총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할 논의 기구를 발족하기로 확약받았다"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정책 결정 담당자와 실무 총괄 담당자를 학교에서 배정해 학생 대표와 등록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연속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 본부는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약속을 투명하게 시행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는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학교와 학생 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합의된 등록금 인상률이 진정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기채: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실력과 실행력으로 우리학교의 도약을 이룰 제13대 강기훈 총장을 만나다

지난해 11월 28일 치러진 제13대 총장 선거에서 강기훈 총장 후보자가 최종 득표율 71.3%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우리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최종 선임되었고, 3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다. 3월 6일에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 강기훈 총장의 향후 행보에 교내외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외대학보가 강 총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1. 우리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72년의 역사와 함께 45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의 언어 및 지역학을 선도해 온 우리학교의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한 이공계 교수로서 우리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의 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외대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과 큰 기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원에 부응해 외국어와 지역학의 전통 위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총장으로서 우리학교를 이끌어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국제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공존하는 환경은 창의성과 혁신의 중요한 토대이며 우리학교의 정체성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대학은 지식과 사회를 연결하기에 우리학교는 앞으로 언어, 기술, 산업, 세계를 연결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지금 대학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 정신으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우리학교가 도약할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Q3.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학교의 강점인 언어와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학교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이 AI의 발전과 함께 인문학과 언어의 위기를 논합니다. 그러나 AI가 발전할수록 인문학적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자산인 언어와 지역 전문성은 AI 시대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닙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강점을 유지하는 것과 AI와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는 AI와 결합한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연구 역시 글로벌 산업을 연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AI 활용 역량까지 갖춘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Q4. 작년 QS 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종합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약 중 '2029년까지 국내 TOP 10 진입'을 위해 어떤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순위 관리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학교는 고유의 강점과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만큼 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S 평가에서 우리학교의 연구 영향력 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기에 논문 편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피인용도 중심의 연구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연구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교수 채용 등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Q5. 지난 10여 년간의 정체된 재정 구조를 지적하시면서 임기 중 재정 규모 3,0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수익 창출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해 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업무협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장학금과 학과 운영 지원금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려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수익 창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학교가 강점을 지닌 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 부지 개발과 임대 및 다양한 수익형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재정 수입원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장학△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및 국내 기업과 연계한 장학제도인 브랜디드 스칼라십과 발전 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시 재정 기반 확대의 중요한 축인 만큼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관리도 병행해 장기적인 인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Q6. 상대평가 학점 비율 조정과 타 대학을 참고한 기타 학점 규정 개편을 통해 학점 제도 개선을 하실 예정이라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대평가 학점 비율은 반드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가 학점비율 측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타 대학교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의견 또한 반영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 간담회와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7.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송도캠은 우리학교의 미래 국제화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 캠퍼스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도캠은 △바이오 관련 기업△병원△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있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이자 인천공항과 인접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도시라는 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송도캠은 정원 35명 규모의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와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외국인 자유전공학부를 중심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접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적 강점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송도의 지역적 특성과 국제적 입지를 살린 대학원 과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닌 △물류△항만△해운의 강점과 국제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물류와 외교 및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입니다.

Q8. 임기 동안 여러 공약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행 과정에서 재정 문제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 차이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재정, 학사, 연구지원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외부 투자 유치와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 기반도 함께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 차이는 우리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갈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는 일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과 실행 중심의 우리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외대학보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이 단순히 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역량 확장△자신의 가능성 발견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과 도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학교 역시 학생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총장으로서도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학교가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AI로 미래를 연결하며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제59대 총학생회 '박동' 임기 마무리, 성과와 아쉬움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이하 박동)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외대에 울리는 우리의 변화'란 청사진을 가지고 출범한 박동은 임기 동안 △사전 수강 신청 제도△최우등 졸업 제도△학점 포기제 도입 등 교육 정책 부문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 또한 있었다. 본 기사를 통해 △박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박동의 아쉬운 점△총학생회장단의 소회에 대해 알아보자.

◆총학생회 박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

학점 포기제와 최우등 졸업 제도 도입은 박동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박동은 지난해 학사제도 CPR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사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를 수합했다. 이를 토대로 주무 부처에 지속적인 요구를 진행해 학점 포기제와 최우등 졸업 제도 도입을 관철했다. 이예지(서양어·스페인어 24) 씨는 "최우등 졸업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학업에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며 "학점 포기제 역시 더 보완되면 취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은 "학우님들이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관련 부처 면담 참여△설문조사 제작△타 대학 사례 조사 등 도입 과정에서 활약했던 교육정책국서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학점 포기제의 부족한 부분은 임기 중 해결하고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제13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동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전체학생총회 개최△총학생회 혁신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이전 선거보다 높은 학생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유하(상경·국통 24) 씨는 "총장 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우들이 많은데 총학생회의 활동을 통해 총장 선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선거의 문턱을 낮춘 것 같다"라며 "우리학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중심적인 주체임을 다시금 환기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동은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때가 총장 선거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했다"라며 "특히 총학생회 혁신위원회와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총장 후보들에게 학생들의 여러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은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교수님과 직원 노조와의 단결 역시 총장 선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박동의 이번 해 신입생 환영회 기획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동은 새맞이 행사에서 △다채로운 부스 운영△스페셜 포토프레임 설치△완성도 높은 환영 무대 등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박동의 기획력을 칭찬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임수아(경영 25) 씨는 "새내기들의 높은 대학 생활 기대감을 만족시켜 주는 완성도 높은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동은 "인기 아이돌을 초청하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이번 새맞이 행사 때는 반드시 인기 아이돌을 부르고자 했다"라며 "△동아리연합회와 현장 스태프들의 노고△임기 중 여러 협찬과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보△학교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성공적인 신입생 환영회 개최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동의 아쉬운 점

박동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존재했다. 박동은 선거운동본부 시절 A/B 학점 비율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성적 평가 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A/B 학점 비율 확대 공약은 취업 경쟁력 확보라는 필요성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이행되지 않아 아쉬웠다"라며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제 추진 시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은 "공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비판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우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총학생회는 교무처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꾸준히 A/B 학점 비율 확대를 요구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점 A/B 비율 확대의 경우 강기훈 우리학교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님께서 조속한 시행 의지를 밝히셔서 곧 학우님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약소하게 개최된 지난해 가을 축제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봄 축제를 개최하고 가을 축제는 문화제 'Look UP'으로 대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신입생이어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타 대학과 비교해 우리학교 가을 축제는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은 "총장 선거 대응을 위한 전체학생총회를 계획하면서 총회에 투입될 예산도 고려해야 했다"라며 "축제 하나를 기획하려면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여름방학 기간부터 총학생회 구성원 대부분이 총장 선거 대응에 투입되면서 실무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을 문화제에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등 노력했지만 학우들이 기대한 가을 축제에 못 미친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수학습개발원 엘리베이터 설치△도서관 자료실 개방 확대△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 금액 지원 등도 아직 이행되지 않은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박동은 "교수학습개발원 엘리베이터는 여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도서관 자료실 개방 확대는 임기 중 완수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현재 학교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투자 확대 약속을 받은 상황이기에 차기 총학생회가 잘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교수학습개발원 및 외국어연수평가원 엘리베이터 신설 확정 공지가 게시됐다. 또한 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원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한국정보인증(KICA)가 진행해 학교가 직접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단의 소회

나민석(사회·정외 22)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나 회장)은 임기 중 가장 유의미한 성과로 총학생회에 대한 우리학교의 신뢰와 존중을 꼽았다. 나 회장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표출을 통해 학교가 총학을 더 신경 쓰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강기훈 총장님께서 학기별로 공약 이행 성과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총학생회를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각종 요구사항이 이전 총학보다 많이 들어왔다"라며 "학우들로부터 총학이 불합리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4년 차 총장과 함께해야 했다는 점을 꼽으며 "총장 임기 마지막 해라는 한계로 바꾸고 싶었던 것들을 바꾸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죄송했던 순간으로는 교수회관 식당 이용 자제 캠페인을 진행했던 순간을 꼽았다. 나 회장은 "당시 배경 설명이 부족한 채로 교수회관 식당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던 거 같아 학우님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차기 총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법인 대응을 꼽았다. 나 회장은 "현재 법인 이사회 구성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며 "다음 이사회가 오는 4월 20일 예정돼 있어 박동 임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차기 총학생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임기 동안 고생해 준 박동 구성원과 일할 기회를 주신 학우님들께 감사하다"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송준우(상경·경제 22) 설캠 부총학생회장(이하 송 부회장)은 임기 중 가장 유의미한 성과로 우리학교에 대한 기대 확대를 꼽았다. 송 부회장은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효용을 가지는 구조"라며 "지난 총장 선거와 총학생회의 정책을 통해 이런 구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학우분들이 △다음 총학생회 △앞으로의 우리학교 △총장님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의에는 "총장 선거 대응 과정이 너무 바빠서 학우분들과 했던 약속이나 총학이 하고 싶었던 정책들이 생각보다 온전하게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차기 총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학우들의 기대 충족을 꼽았다. 송 부회장은 "강기훈 총장님이 부임하신 첫해인 만큼 학우분들의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대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총장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부회장은 "박동을 믿고 지지해 준 학우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총학생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총학생회와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4.03(금) ~ 04.17(금)	2026.05.29(금) ~ 06.12(금)
고사장 발표	05.06(수) 15:00	06.24(수) 15:00
면접전형	05.09(토) 10:00 예정	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1(목) 14:00	07.02(목) 14:00
등록예치금 납부	05.26(화) ~ 05.29(금)	07.06(월) ~ 07.1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순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 3. 26.(목) ~ 4. 1.(수) 16:00	2026. 4. 27.(월) ~ 5. 4.(월) 16:00
면접전형	2026. 4. 25.(토) 10:00	2026. 5. 30.(토) 10:00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9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나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벨기에 이야기

주변의 많은 이들이 왜 네덜란드어과인데 벨기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느냐 묻곤 한다. 나 또한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늘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흥미를 찾으며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학과 수업에서는 네덜란드에 관한 내용은 자주 다루지만 같은 네덜란드어권 국가인 벨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느껴 호기심도 생겼다. 이에 난 표준 네덜란드어보다 네덜란드어의 사투리격인 플레미시(Flemish)를 배우고자 벨기에 교환학생을 결심했다.

내가 교환학생 중 생활했던 도시

인 루벤(Leuven)은 외국인 학생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였다. 거주자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이고 지역 주민들 또한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라는 점은 내가 현지에 적응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매일 아침 붐비는 서울의 인파 대신 지저귀는 새소리와 여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삶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다만 우리나라만큼의 편리함은 없었다. △기차 지연△느린 행정 처리 속도△비싼 물가로 인해 부담스러운 배달음식은 벨기에 적응 과정에서 분명한 난제였다. 그러나 쾌청해진 생활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다.

벨기에는 외유내강의 매력을 지닌 국가다. 북쪽의 네덜란드나 남쪽의 프랑스처럼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아니지만 한 국가 내 공존하는 두 개의 언어권이라는 점이 외국인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수도인 브뤼셀만 해도 북부 지역임에도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언어 장벽은 원활한 소통에는 방해가 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론 친구들과 함께한 할로윈 파티를 꼽고 싶다. 파티에서 입을 의상을 고민하던 중 친구가 오징어 게임의 병정 복장을 추천했고 국적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난 핑크색 병정 복장과 장난감 권총을 준비해 파티에 참여했고 덕분에 그날만큼은 출신 국가를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인생 첫 할로윈 파티를 후회 없이 즐긴 순간이었다.

사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배운 것이 거창하진 않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는 깨달음△유럽을 여행하며 느낀 세상의 넓이△친구들을 웃기기 위해 찾은 몇 마디 영어 표현 정도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교환학생이라는 선택 자체는 큰 결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며 쌓아가는 작은 경험들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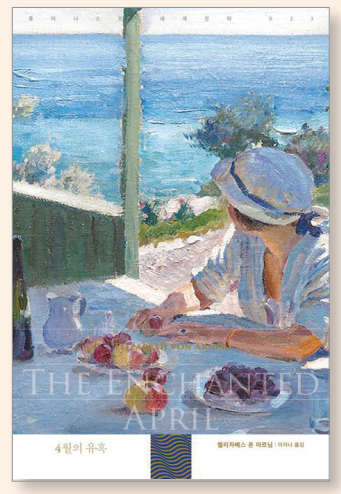
우리학교처럼 외국어 타이틀을 가진 대학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외국인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나 역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문화△언어△피부색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찰나가 비로소 세상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우들도 그 눈부신 순간을 꼭 경험하길 바란다.

오세권(서양어 · 네덜란드어 21)

읽어서 세계속으로

영국

<4월의 유혹>
- 나를 피어나게 한 여행 -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떠나는 여행은 어떤 느낌일까. 일상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낯선 땅으로의 탈출은 때로 삶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님(Elizabeth von Arnim)의 소설 〈4월의 유혹〉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를 가꿔나가는 과정이 나를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얼마나 눈부신 변화를 가져오는지 잔잔하고도 아름답게 보여준다.

소설의 네 주인공은 저마다의 이유로 지쳐 있다. △사회의 기대에 맞춰 신을 섬기며 살아온 아버스넛 부인(Mrs. Arbuthnot)△산만하고 의존적이던 윌킨스 부인(Mrs. Wilkins)△옛것에 매여있는 보수적인 피셔 부인(Mrs. Fisher)△인간에 대한 신뢰와 흥미를 잃고 염세주의에 빠진 레이디 캐럴라인(Lady Caroline). 이들은 우연히 타임스의 고민 상담 코너에 게재된 광고를 접하고 용기를 내 우중충하고 답답한 런던을 뒤로한 채 중세 이탈리아의 성 산 살바토레(San Salvatore)로 떠난다. 산 살바토레는 이탈리아어로 구세주 혹은 구원을 뜻한다. 그 이름처럼 이 여행은 네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어준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마음이 이해와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져 간다.

성에 도착한 그녀들을 맞이한 것은 눈부신 4월의 이탈리아였다. △다채로운 색채로 피어난 꽃들과 그 향기△따스한 공기 속에 스며드는 계절의 감각들△햇빛을 받아 넘실거리는 바다의 윤슬. 순식간에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그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긍정과 용기를 되찾는다. 새장 안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각자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애정과 활기가 충만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 성장해 나간다.

소설이 발간된 100여 년 전의 유럽은 전쟁의 상흔을 단 채 △경제△사회문화△정치 각 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시기였다. 오랫동안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고 권리와 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역동적인 격변의 시대 속에서 과거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을 되찾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여행이 삶의 전환점이 되고 오래도록 자신을 지켜줄 구세주가 된 것이다.

때마침 4월이다. 우리 모두 가끔은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산 살바토레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윤슬처럼 반짝이는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유를 향한 4월의 여행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색채의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4월의 시작점에서 새로운 안녕을 외쳐본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달리는 폭탄’ 픽시 자전거,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

지난해 7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ke)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위험 주행을 반복한 청소년의 보호자가 방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고정 기어 자전거다. 가볍고 빠른 속도와 묘기 수행의 용이성으로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제동장치 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픽시 자전거 문제 현황△픽시 자전거 문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픽시 자전거 문제 현황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안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42.8%가 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직전의 위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3.8%는 실제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급제동△과속△브레이크 미장착△조작 미숙 등이 꼽혔다. 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자주 타는 공원 근처에서 거주 중인 이서준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중학생 여러 명이 픽시 자전거를 타며 행인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마주했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적이 있다”며 픽시 자전거로 인한 피해 경험을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픽시 자전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개월간 전국 픽시 자전거 단속 건은 721건으로 하루에 약 5건꼴로 발생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6.4배까지 길어지기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갖춰지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8월 19일에는 대전 서구에서 갑자기 등장한 픽시 자전거와 청색 신호에 주행 중이던 택시가 충돌해 픽시 자전거 운전자인 10대 청소년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픽시 자전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을 위협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의 자전거 연습장에 모인 청소년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질주했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찰관들이 세워 둔 경찰차를 픽시 자전거로 둘러싸고 발길질하거나 바퀴로 옆문을 찍는 등 위협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픽시 자전거 문제 원인

픽시 자전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 구조와 운전자 개인의 주행 방식의 영향이 있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봤을 때 첫째로 브레이크 제거 및 불법 유통 구조에 있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 위험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최근 고의로 뒷바퀴를 미끄러트려 마찰로 속도를 줄이는 제동 기술인 스키딩(skidding)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며 일부러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로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의 브레이크 장착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 중 47대가 브레이크 장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가 관리 및 감독의 사각지대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데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판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안전 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하나 실제 픽시 자전거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판매업체 12개 중 3개는 제품의 안전 확인 신고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돼야 안전확인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중 75%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55%는 앞바퀴와 뒷바퀴 중 하나에만 브레이크가 있었고 20%는 아예 브레이크가 제거된 상태였다.

둘째로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있다. 현행법상 픽시 자전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가 주행 중인 자동차나 행인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가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위협적으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 두 명도 그들의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됐을 뿐 운전자의 픽시 자전거 주행 자체에 대해선 혐의를 묻지 못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픽시 자전거 주행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 귀가 조치 외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주행하는 것 또한 단속 대상이지만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픽시 자전거를 단속하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단속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찰이 픽시 자전거뿐만 아니라 △과속△신호위반△음주 운전 등 다방면의 단속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은 기타 대형 교통사고 관련 업무에 밀려 뒷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여의도공원에서 픽시 자전거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청소년들로부터 위협당한 경찰관들에 따르면 제한된 인원으로 픽시 자전거를 단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기에 경찰이 출동하면 순간적으로 흩어지면서 경찰을 따돌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 픽시 자전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 인식 부족과 보호장구 미착용에서 찾을 수 있다. 픽시 자전거를 타는 많은 청소년들이 필수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 24대의 운전자 전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중 18대는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등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픽시 자전거의 경우 제동이 어려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일반 자전거보다 높기에 부상 및 사망 위험이 더 증가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픽시 자전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7일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제품 상세 페이지 내 △부적절한 홍보 이미지 삭제△브레이크 장착 여부의 명확한 표시 추가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역시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고 관계 부처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자전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등 사전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픽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인천시의회에선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개인의 취향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안전한 환경 조성 책임과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매년 △이용 현황 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청소년과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체계적인 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 지시도 포함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방치됐던 픽시 자전거 이용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도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의원은 “픽시 자전거가 구조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 제한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시공원△일반 도로△자전거도로△한강공원 등에서 해당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법률안을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 시민들 간의 혼란도 줄어들고 더 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구조상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 높은 숙련도와 안전 의식이 요구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시켜 올바른 이용 방법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에선 학교와 지역 경찰이 협력해 자전거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학생들은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을 학습한 뒤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주행 능력을 검증받는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픽시 자전거는 오늘날 청소년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안전 공백이 존재한다.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주행과 제동이 일반 자전거보다 어려운 만큼 안전모 착용과 같은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우선시돼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감독△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촘촘한 제도 마련이 병행될 때 픽시 자전거는 비로소 달리는 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6.5.6.(수) 15:00	2026.6.24.(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6.5.22.(금) 15:00	2026.7.10.(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2026.7.17.(금)	우리은행 전국 지정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크전공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사고 예방과 행정 낭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개최됐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두고 다수의 전문가는 국가 위상 상승과 경제효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연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을 동원한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전개△광화문 공연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전개

약 3년 9개월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새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을 선보였다. 앨범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이번 공연은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선정하며 주목을 받았다. 유동주 하이브 APAC 지역 대표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슈퍼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약 4년 만에 컴백을 한다면 그 시작점은 우리나라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장소선정 이유를 밝혔다. 광화문 사용을 허가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은 희망의 상징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빛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은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다"라고 장소선정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이번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대규모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미용△음식△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명동의 한 카페에 일하는 대학생 A 씨는 "일주일 동안 명동에서 평생 만날 모든 사람을 다 본 것 같다"라며 "평소 손님이 많지 않은 요일과 시간대에도 사람이 붐벼 새삼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공연에는 △경찰△서울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로구△중구△하이브△행정안전부 등 8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정부에서도 공연 이틀 전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또한 안전사고 및 테러를 우려해 주변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교통통제 역시 한층 강화했다.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을 찾은 독일인 니콜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교통통제에 대해 "경찰이 많이 있어서 교통질서 부분에서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문제점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이 국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이번 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했다. 공연 전부터 이루어진 각종 규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서울시 및 관계 기관은 이번 공연을 위해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인 △사직로△세종대로△새문안로를 통제했다. 대중교통에서도 일부 정거장들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며 이동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다. 이러한 교통통제에 이어 시민들에 대한 과잉 통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연 전부터 테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길목마다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강화했다. 이는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하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 버스를 투입했다. 그러나 결혼식 하객들이 검문소에서 청첩장을 확인받거나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받으면서 제시간에 식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결혼식을 올렸던 한 신혼부부는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연을 계기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이 사라졌다"라며 "검문 탓에 오지 못한 하객들이 많아 사실상 결혼식을 망쳤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또한 광화문에서 예정됐던 집회들 역시 해당 공연을 이유로 제한되거나 장소를 변경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이 세계적 이벤트라는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강제로 통제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며 "행정당국이 집회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조율해 최소한으로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인근 회사들의 연차 강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는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공연을 앞두고 직장인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업들은 광화문 공연으로 인해 발생할 안전 문제와 업무 차질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러한 조치가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다"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공연 이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후 일부 관객들은 우회 버스를 타기 위해 멀리 떨어진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우회 버스 현황에 혼선이 발생해 늦은 밤이 돼서야 귀가한 사람들도 있었다. 현장에 있던 B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버스로 홍대까지 돌아가야 했다"라며 "당시 네이버 지도에는 버스 우회 현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착오가 발생했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행정력 과잉 동원과 수요예측 실패였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이번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규모 행정 인력을 동원했으나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 4만 명이 공연장에 모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상했던 26만 명은 과잉 예측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될 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최소 4억 4천만 원으로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화문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광화문 인근 요식업 가게들은 이번 공연 특수를 기대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교통통제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 손해로 이어졌다는 반응이다. 광화문 인근 식당 주인 C 씨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말인 데다 수십만 명이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찍부터 문을 열고 손님들을 기다렸지만 많은 인파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 뿐 매출이 오르거나 하진 않았다"라며 "오히려 통제 때문에 평소보다 손님이 더 적게 왔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광화문 주변 편의점들도 같은 이유로 간편식과 생활용품의 발주량을 약 4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늘렸으나 예상했던 26만 명보다 적은 4만 명의 인원이 모이면서 인근 편의점들은 재고 부담과 매출 손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의 실시간 상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화문 및 덕수궁 주변 편의점 매출은 1억 9,1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을 기록했다. 평소 매출이 3억 5,200만 원에서 3억 5,3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확연히 적은 수치로 결제량 역시 평소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광화문 공연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을 넘어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익 공유제가 있다. 이익 공유제란 도심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의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기금은 교통통제로 인한 주변 상권의 손실 보전 혹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보전 등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이벤트 개최 시 주최 측과 '지역사회 기여 협약'을 체결해 행사 수익의 일부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협약에는 △공공시설 개선 비용 부담△문화 프로그램 지원△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공공 자원을 활용한 행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사회에 재분배하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이번 광화문 공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강제 반차 사용 및 공공장소 이용 제한이라는 불편을 감수한 만큼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불편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목적형 관광도시 구축도 있다. 이번 공연이 이루어진 서울의 경우 대표적인 목적형 관광도시로 공연 전후 체류 기간 동안 △미용△숙박△음식△패션으로 구조적인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형 관광도시를 지방에도 구축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리는 '서머소닉(SUMMER SONIC)' 음악 페스티벌은 음악이라는 테마를 지역과 연계해 목적형 방문 수요를 만들고 △교통△상권△숙박을 묶은 구조로 소비를 확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기획에 참여하는 구조로 매년 수만 명 이상의 관람객 소비를 이끌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단순 문화적 행사를 넘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할 힘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장소선정에 대한 명과 암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더 나은 행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주호영 · 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격해지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배제되면서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만큼 보수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관위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해 주호영 국회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어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정당을 망쳐온 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라며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사...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이하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구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일본△중국 등 서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유세율을 둔 선진국들을 다루고 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역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라고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 이재명 대통령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검토",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 여파 대응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직장으로 출근하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늘리는 걸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 한두 시간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제 한미 연합훈련에 "명백한 전쟁 준비" 반발한 러시아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해 '전쟁 준비'라며 반발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5일 리아노보스티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한국이 또 다른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방어 훈련이라고 발표됐지만 기동의 내용과 동원된 군사 장비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전쟁 준비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역시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이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BS와의 인터뷰에서 군 관계자는 "병력과 장비 투입 규모가 예년 수준이었고 지휘소 연습에 적용한 작전계획도 지난해 북한이 비난했던 대상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특별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24일 '전남 ·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행정통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통합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온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아테네 교양학부 학부장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아테네 교양학부 학부장 교수

Q1. 최근 전남 ·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행정통합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방 행정통합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균형 및 인구 소멸 문제를 고려할 때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지탱하는 지방세수 기반이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다수 농촌 지역의 자체 수입으로는 필요 예산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지방정부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그대로이며 세금을 낼 청년들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고령층은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아 막대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지역 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Q2.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과거의 통합 시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통합의 단위와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추진됐던 마산·창원·진해 지역 통합은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융합이었고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은 도 단위의 광역 경제권 형성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지원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합쳐진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행정 특례를 부여해 지자체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예산 사용 및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3. 통과된 통합 논의가 존재하는 반면 대전 · 충남과 대구 · 경북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반려되거나 정체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까지 모두 통합될 경우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시·도지사와 같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기초의원들과 달리 단체장들 입장에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겉으로는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동력이 약화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3-1. 각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추진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단기적인 선거 공약 제시를 중단하거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이 가져올 거시적인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위에서부터의 하향식 통합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추진력을 얻어 국회 특별법 통과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Q4. 행정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이점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점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광역 경제권 형성입니다. 행정구역이 분리됐을 때 불필요하게 중복되던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서비스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큰 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수월해집니다.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Q5. 서로 다른 행정 체계와 이해관계를 가진 지자체들이 통합 이후 하나의 지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행정 구역의 통합을 넘어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필수적입니다.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반쪽짜리 자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합니다. 재정적 자율성이 일정 수준 담보돼야 통합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Q6. 학계에서는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감소뿐 아니라 취업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통합 자체가 인구 감소를 즉각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광역화된 행정 체계와 풍부해진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한다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 수도권으로 향하던 청년들의 걸음을 지역 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통합 이후 특정 중심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재 도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광역 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주변부 지역 주민들이 중심지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이 생기면 지역 내부에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도로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해 권역 내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의 장벽을 낮춰야 인구나 자원이 중심 도시에만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통합 지역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형평성과 평등을 극도로 중시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재정 분권을 시행하면 부유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에 따른 수평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권의 딜레마**로 인해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행정통합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낮아져 이익이 증대되는 현상.
**분권의 딜레마: 지방분권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적 현상.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4.13.(월) ~ 4.24.(금)	2026.6.1.(월) ~ 6.12.(금)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5.22.(금) 16:00 예정	2026.7.10.(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7.17.(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월) ~ 6. 17(수)
고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실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전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뒷담하는 기자 취재뒷이야기

예민함이 만들어준 선명한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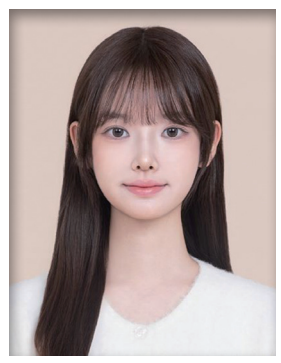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나 역시 그런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피곤한 성격으로 인해 별것 아닌 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감정이 쌓이면 몸으로 드러나 열병을 앓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예민함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던 이 예민한 감각이 점차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로 향하기 시작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의 이면을 짚어내는 데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변 일들이나 뉴스 속 사건들을 접할 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정의와 공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안타깝다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 작게나마 그들을 위한 일을 할 때면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감의 영역은 시간이 지나며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로 확장됐다. 세계 곳곳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을 마주하며 비록 세계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하는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싶다는 생각에 프랑스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다. 프랑스어는 단순히 프랑스 한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프랑코포니(Francophonie)에 속해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상흔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국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외곽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기사라는 확신을 얻게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는 프랑스어를 활용하는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프랑스 외신기자를 꿈꾸게 됐다. 독서 수업에서 쓴 서평을 공유하며 친구들이 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모습을 보았고 영어신문 동아리 활동 중 내 기사에 대해 토론하는 친구들을 보며 글이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글에 나의 가치관을 담아 △우리나라△프랑스△프랑코포니 국가들의 소식을 생생히 전달하며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외신 기자가 되고자 다짐했다.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내 예민한 성격은 앞으로도 나를 종종 괴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이상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예민함이 나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이며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만의 방식임을 인정할 것이다. 남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덕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음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단단해지되 예민함을 잃지 않고 강직하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의미들을 나만의 언어로 기록해 나가고 싶다.



이서영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모란시장'를 읽고]

상처받은 생명들이 얽힌 공간에서 묻는 우리의 생명권

'우리나라의 개 식용 관행을 고유 전통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했던 논제이다. 해당 논제는 동물권 그리고 나아가 생명권에서도 주요한 문제이다. 현대에 오며 동물 또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는 관념이 확산하며 개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줄었다. 또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도살△사육△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모란시장은 성남시에 있는 실존하는 시장으로 식용 개고기를 파는 전국 최대 시장으로 유명하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출판된 이 책은 모란시장에서 도축 도중에 탈출한 개 '삽교'의 시점을 통해 개고기 도축을 비판한다.

삽교리에서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던 삽교의 삶은 어느 날 밤 완전히 뒤바뀐다. 누군가 개집을 오토바이에 통째로 싣고 도축장으로 납치한 것이다. 이 도축장엔 모란시장의 실세인 박 사장이 개를 식용으로 도살해 큰돈을 벌고 있었다. 삽교는 가족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지만 박 사장의 둘째 부인인 경숙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명진과 함께 대도빌딩에서 살게 된다. 명진은 박 사장의 친형으로 아버지에게 빌딩을 물려받으면서 동생의 눈엣가시가 되어 감금당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한편 경숙은 가난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박 사장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축을 도맡아 하고 있다. 명진은 이런 경숙에게 연민과 호감을 품고 있지만 이를 눈치챈 박 사장의 무자비한 폭력 탓에 그저 무력하게 창문 너머로 시장만 바라볼 뿐이다. 어느 날 도축할 개가 부족해지자 박 사장이 경숙에게 강압적으로 화풀이를 했고 한계에 달한 경숙은 남은 개들을 모두 풀어버린다. 결국 경숙은 박 사장에게 끔찍하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박 사장 역시 개들이 도축 당하던 방식과 똑같이 누군가의 전기봉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시간이 흘러 노견이 된 삽교는 치매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경숙△아빠△옛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거둔다.

책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생명권이란 윤리적 주제를 마주하면서도 등장인물 중 누구 하나 선과 악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갈 곳 없는 이를 거둬주고도 가혹하게 착취하는 잔인한 박 사장이나 살기 위해 억지로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끝내 제 목숨을 걸고 남은 개들을 탈출시키는 경숙을 보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또한 경숙을 구해주고 싶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나약한 명진의 태도 또한 씁쓸함을 안겼다. 특히 가족을 잃게 만든 경숙에게서 목숨을 건지고 도리어 그녀를 연민하는 삽교의 모습은 개의 시점으로 묘사되면서 경숙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한편 상업적으로 꽃의 가시를 무심히 잘라내면서도 상처받은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땐 기꺼이 손을 내미는 능평꽃집 여자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생명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모란시장엔 이렇듯 저마다의 아픈 사연이 얽혀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식용 개에 관한 동물권 논의를 넘어 과연 진정한 생명권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게 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이들과 △동물△사람△식물이 모란시장이라는 가장 삭막하고 메마른 공간에서 묵묵히 연대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빛나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준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햄넷'을 보고]

고난의 바다에서 맞잡은 손

영화 '햄넷(Hamnet)'은 매기 오패럴(Maggie O'Farrell)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이 소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대표작 '햄릿(Hamlet)'의 제목에 얽힌 흥미로운 가설에서 출발한 팩션(Faction)*이다. 매기 오패럴은 셰익스피어에게 11살에 요절한 아들 '햄넷'이 있었고 아들의 사후 7년 뒤에 희곡 '햄릿'이 발표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셰익스피어 전문 연구가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의 저서 속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스트랫퍼드의 기록 문서에서 '햄넷'과 '햄릿'은 보통 혼용됐으며 사실상 같은 이름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두 이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며 작품의 서사가 형성된다.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시점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초반부를 그의 아내인 아녜스(Agnes)의 시점으로 끌고 간다. 아녜스는 숲과 자연을 사랑하고 식물을 이용한 치유 능력을 지닌 비범한 여인이다. 그녀는 가난한 라틴어 가정교사였던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을 꾸려 △첫째 딸 수재나(Susanna)△이란성 쌍둥이 남매 햄넷△주디스(Judith)를 낳는다. 이후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꿈을 좇아 극단에서 일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난 사이 평화롭던 이들의 일상은 1596년 영국을 덮친 흑사병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다. 11살이었던 햄넷은 사경을 헤매는 쌍둥이 여동생 주디스를 헌신적으로 돌보다 운명을 바꿔 동생 대신 목숨을 잃고 만다. 이후 아이를 잃은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텅 빈 상실을 견뎌내기 시작한다.

셰익스피어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슬픔을 억누르는 듯 보이지만 런던에서 연극을 준비하며 배우의 대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기혐오와 절망에 몸부림치는 내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비록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강가에 홀로 서 삶 자체에 대한 지독한 괴로움을 토해내는 독백 장면은 그의 비통함을 생생히 전한다. '죽음이라는 잠 속에서 어떤 꿈이 올지 그것이 우리를 주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래 사는 재앙을 감내한다.' 이 처절한 물음은 '삶은 곧 고통'이라는 불교적 통찰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의 독백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남편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상업적 연극으로 소비했다고 오해한 채 분노에 휩싸여 런던의 극장을 찾은 아녜스의 시선을 통해 완성된다. 처음에는 분노 속에서 무대를 바라보던 그녀는 점차 극의 서사에 깊이 빠져든다. 연극의 후반부 왕자가 독을 마시고 홀로 죽어가는 장면에서 아녜스가 무대를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자 주변의 관객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손을 내민다. 이 장면은 극장 안의 모든 이들이 함께 소년 '햄넷'의 죽음을 애도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다가오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압도적인 순간은 예술이 이끌어내는 공감과 연대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문학과 예술이 실용성에 밀려 점차 그 가치가 축소되는 시대라지만 나는 여전히 예술이 지닌 고유한 힘을 믿는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힘. 영화 '햄넷'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힘임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전한다.

*팩션(Faction): 역사적 사실(Fact)에 상상력(Fiction)을 더해 재구성한 영화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1113호 학보를 읽고

김민서(영어 · 영문 2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일상의 불편을 짚어낸 시선

일상 속 불편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별일 아닌 듯 지나쳤던 작은 문제들도 반복되면 어느 순간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와 개인의 일상을 무겁게 만든다. 외대학보는 이러한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먼저 3면 준기획은 우리학교의 OT와 수강신청 정정이 같은 시간에 이뤄져 발생하는 학생들의 혼선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동시에 운영되는 OT와 수강신청 정정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 집중 어려움△정정 기간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불이익△조 편성 관련 불이익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 개강 첫 주에 진행되는 수업에서 수강신청 정정에 집중하느라 교수님의 OT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번은 교수님이 수강신청 정정을 시도하는 학생을 보며 "제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다른 수업 신청하십시오"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일을 목격한 일도 있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수업 시간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사에 제시된 타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학교 또한 학생과 교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

5면에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문 앞 거리의 치안 문제를 다룬다. 현재 글캠 학생들은 △글캠 내 광역버스의 빠른 속도 문제△낙후되고 부족한 안전 시설△도로 중심 구조 등으로 인한 위험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기사의 조사에 따르면 글캠 인근 치안 및 안전 문제에 대해 80%가 넘는 학생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위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사에서는 현재 모현파출소의 순찰 및 자율방범대의 순찰을 통해 글캠 치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와 지자체의 충분한 협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7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를 조명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평균 수면 시간은 전 연령 중 가장 짧다고 한다. 이러한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들의 수면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기사에선 △과도한 경쟁△보상 수면으로 인한 수면 장애△취침 시간 지연 행동이 제시됐다. 수면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7시간을 잤다 말하면 '푹 잤네'와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OECD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22분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기사에선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품과 수면 보조제 등이 제시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기보단 임시방편에 가깝다.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는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문제를 단순한 불편으로 넘기지 않고 그 이면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이러한 문제들을 꾸준히 조명함으로써 학내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1113호 학보를 읽고

안현태(자전 2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신입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학교의 오늘

이제 좀 따뜻하려나 싶어 입은 얇은 옷을 나무라듯 뼈에 사무치는 칼바람이 스치는 춘분이다. 찬바람을 피해 우리학교 도서관에 들어서니 정문에 새로이 비치된 외대학보 1113호가 눈에 들어왔다. 올해 신입생인 나의 마음엔 아직 익숙함이라는 여유보다는 호기심이라는 낯섦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

5면의 글캠 안전의 취약성에 관한 기사는 내 마음을 조금 무겁게 했다. 기사를 통해 늦은 밤 하교할 때 등굣길에 설치된 가로등이 밝기가 약한 전구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역버스가 고속으로 달리는 등굣길△도로 양 옆에 위치한 도랑△보수가 필요한 보도와 같은 부분들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 생각됐다. CCTV 인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물론 글캠 부지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명수당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인해 전구의 빛이 덜 번질 수 있고△야생 동물에게 악영향을 덜 줄 수 있으며△벌레가 덜 꼬여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재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길이 어둡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9면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전망을 다룬 기사는 외대학보만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기사였다. 유달승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의 견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보인 정치·군사적 행보에 어떤 저의가 담겨 있을지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문외한인 나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교수라는 학계 전문가의 견해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학보의 가장 큰 장점이란 생각이다. 구체적인 학사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좋았다.

3면에선 OT와 수강신청 정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안을 다뤘다. 사실 나는 이런 수강 신청 방식에 긍정적이다. 한 강의에 대한 선호는 강의 계획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강의 스타일△교수의 성품△학업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OT를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e-Class에 자료를 올리거나 2주 차 강의 때 그들을 위한 간단한 OT를 추가로 진행하는 강의도 있던 것을 보니 현재 수강신청 정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제도인듯하다.

열린공간에선 기자들의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타국 생활 끝에 다시 한번 외대학보에서의 새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기수에 배정받은 어느 기자의 이야기△책과 영화에서 얻은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우리학교의 새로운 출발에 앞서 모두를 격려하는 사설과 같이 고민과 성찰이 담긴 글들은 세상을 새로이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바라볼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거세게 부는 변화의 바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외대학보가 되길 바라며 지금껏 노력한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할 외대학보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한다. 나 역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신입생이자 성년으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벚꽃이 피어난 자리, 그 아래 빈 의자에 앉다

부장으로서 세 번째 호를 맞이하며 처음으로 빈의자 앞에 앉았다. 처음 앉아보는 이 빈의자가 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이전에는 그저 읽어내려갔던 빈의자를 나의 시선과 문장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학내외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학우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연다.

3면에선 인성 교육 교과목의 평가 방식 전환에 따른 논란을 다룬다. 우리학교는 최근 기존 P/NP 방식이던 인성 교육 과목을 상대평가로 변경했다. 도덕적 가치를 상대평가로 줄 세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사 제도 개편과 과목의 특수성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인 만큼 단순한 성적 나누기를 넘어 △평가 방식의 타당성 △체험형 수업의 특수성 반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성 교육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어지는 5면에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의 임기 마무리와 함께 그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본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청사진을 바탕으로 △사전 수강 신청 제도 △최우등 졸업 제도 △학점 포기제 도입 등 교육 정책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에 대한 학우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이번 임기 종료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긍정적인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여 앞으로의 학생 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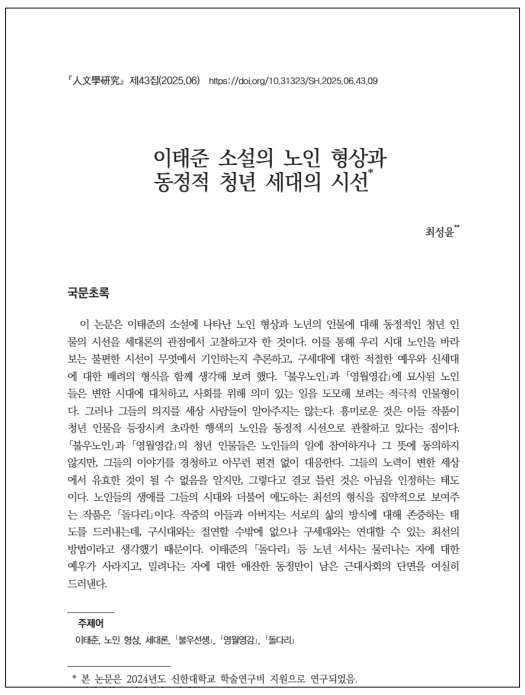
다음으로 8면에선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명과 암을 조명한다. 당초 예상했던 2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4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서 특수를 기대했던 인근 상권은 교통통제로 인해 오히려 매출 하락 등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대규모 도심 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이익 공유제 도입과 목적형 관광도시 구축 등 제도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문화적 파급력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9면에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시 논의를 다룬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문제로 난항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아테네 교양학부 교수는 행정통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단순한 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광역 교통망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당면한 과제들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벅차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 묵직한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캠퍼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값진 진통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막연해 보이던 혁신은 비로소 구체적인 현실이 될 것이다. 새롭게 쓰일 2026년 우리 학교의 역사 속에서 학우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는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기자들의 추천 논문



『人文學硏究』 제43집(2025.06) https://doi.org/10.31323/SH.2025.06.43.09

이태준 소설의 노인 형상과 동정적 청년 세대의 시선*

최성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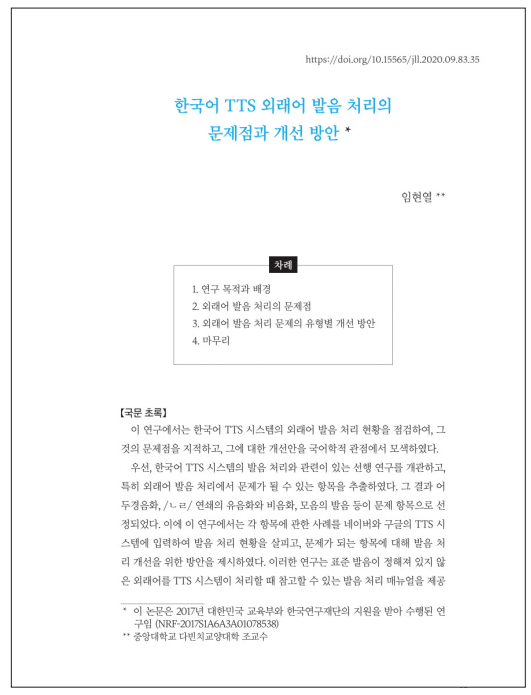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태준의 소설에 나타난 노인 형상과 노년의 인물에 대해 동정적인 청년 인물의 시선을 세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 노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추론하고, 구세대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신세대에 대한 배려의 형식을 함께 생각해 보려 했다. 「불우노인」과 「영월영감」에 묘사된 노인들은 변한 시대에 대처하고,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해 보려는 적극적 인물형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작품이 청년 인물을 등장시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동정적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우노인」과 「영월영감」의 청년 인물들은 노인들의 일에 참여하거나 그 뜻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대응한다. 그들의 노력이 변한 세상에서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결코 틀린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노인들의 생애를 그들의 시대와 더불어 에도하는 최선의 형식을 절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돌다리」이다. 작중의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는데, 구시대와는 절연할 수밖에 없으나 구세대와는 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돌다리」 등 노년 서사는 물러나는 자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고, 밀려나는 자에 대한 애잔한 동정만이 남은 근대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제어
이태준, 노인 형상, 세대론, 「불우선생」, 「영월영감」, 「돌다리」

* 본 논문은 2024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상허 이태준의 노년 서사는 물러나는 자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고 밀려나는 자에 대한 동정만이 남은 근대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서정적 표현을 통해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조그만한 위로를 건넨다.



https://doi.org/10.15565/jll.2020.09.83.35

한국어 TTS 외래어 발음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임현열 **

차례

1. 연구 목적과 배경
2. 외래어 발음 처리의 문제점
3. 외래어 발음 처리 문제의 유형별 개선 방안
4. 마무리

【국문 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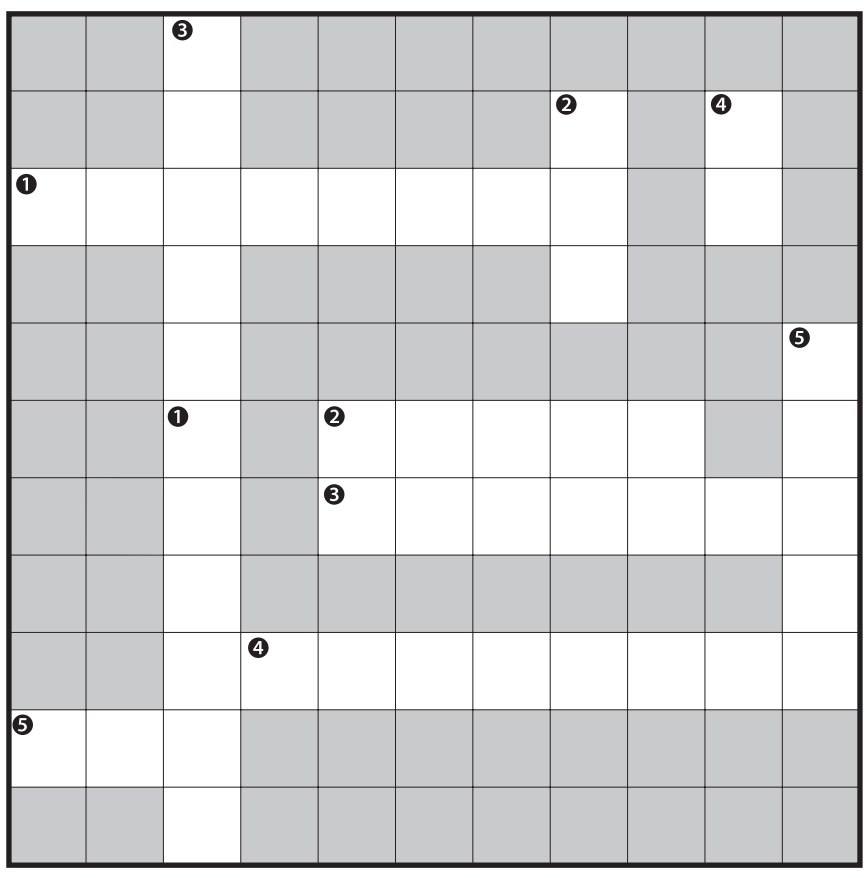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TTS 시스템의 외래어 발음 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우선, 한국어 TTS 시스템의 발음 처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를 개관하고, 특히 외래어 발음 처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어두경음화, /ㄴㄹ/ 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모음의 발음 등이 문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관한 사례를 네이버와 구글의 TTS 시스템에 입력하여 발음 처리 현황을 살피고,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발음 처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표준 발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외래어를 TTS 시스템이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발음 처리 매뉴얼을 제공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한국어 TTS 시스템이 외래어를 읽을 때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꼬이는 현상을 분석했다. 특히 △모음의 발음△어두경음화△/ㄴㄹ/ 연쇄의 유음화와 비음화 등의 실제 발음 사례를 네이버(Naver)와 구글(Google)의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의 ○○○○○○○를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해 AI 기술 역량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동시에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면 참조)
2. 박동은 지난해 학사제도 CPR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사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를 수합한 후 이를 토대로 주무 부처에 지속적인 요구를 진행해 ○○○○○와 최우등 졸업 제도 도입을 관철했다. (5면 참조)
3.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 ○○○○○○이 실시한 안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42.8%가 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직전의 위험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3.8%는 실제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7면 참조)
4.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 개편. ○○○○○○○ (9면 참조)
5. ○○○ 대사관 경제상무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력을 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2면 참조)

세로

1. 우리학교 G-RISE 사업단은 경기도 RISE 사업의 ○○○○○○ 육성형 일반대학 트랙에 선정됐다. (2면 참조)
2. '지난 1100호에서는 5% 인상된 우리학교 ○○○에 대해 다뤘다
3. 앞으로 우리학교가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고 AI로 미래를 연결하며 ○○○○○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4면 참조)
4. 반면 이행하지 못한 ○○들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 또한 있었다. (5면 참조)
5.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 공연이 개최됐다.(8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말의 힘

말: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로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그렇다면 과연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도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말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내는 공기의 진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요소 아닐까. 그렇기에 목소리가 없는 행위들도 하나의 말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투자해 상대를 위하는 것△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는 것△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등은 굳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진심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심 그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항상 사용한다.

그렇기에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듯이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위로가 되고△인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힘이 되기도 한다. 며칠 전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수고하세요' 한 마디가 내 마음속 짐이 되는 동시에 잘하고 싶다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노래 가사만으로 하루를 위로받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듯이 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 가끔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제한적 힘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가 말을 건네더라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말은 쉽게 증발한다. 증발한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며 대상을 찾다 소멸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정제하고 골라 그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하게△오래 남을 수 있게△덜 상처 주게 계속해서 수정해 나간다. 간단하게 보이는 글조차도 수천 번의 퇴고와 단어 선정을 거쳐 완성돼 듯 우리는 모두 말의 의미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애쓰고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요즈음, 표정도 목소리도 없이 전달되는 말은 쉽게 오해를 불러오고 때로는 의도보다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된 조심성은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빠르게 주고받는 짧은 문장들 속에서 점점 말은 가벼워지고 책임 또한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에 대한 책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우리는 어느새 말의 중요성을 경시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받기만을 바라며, 관계를 가볍게 무너뜨리는 순간들 속에서 말은 점점 본질을 잃어간다. 말을 더 이상 마음을 전달하기 보단 서로를 향한 무기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적절한 말을 골라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한마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나 또한 항상 잃지 않길 바란다.

·현재우(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jaewoo@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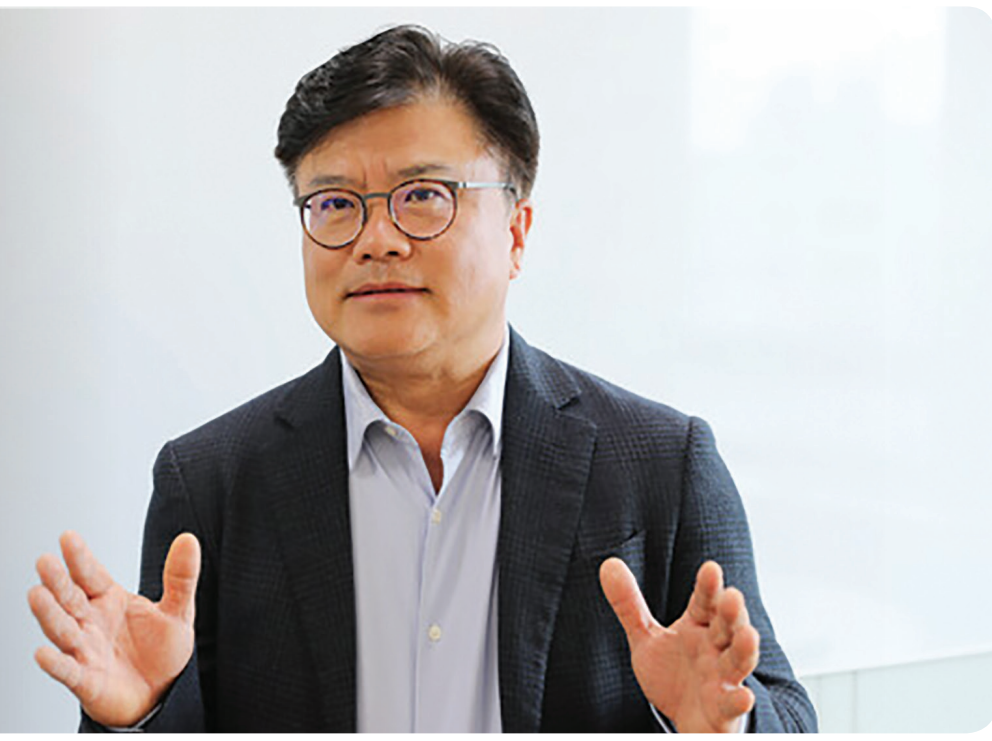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현재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철도로 세계를 잇는

조일연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본부장을 만나다



조일연(서양어 · 프랑스어 90)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본부장(이하 조 본부장)은 우리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서유럽지역연구 전공 과정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현대로템에 입사해 현재 레일솔루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남다른 수주 역량을 입증해 온 조 본부장은 시드니 NIF(New Intercity Fleet)* 2층 전동차 사업과 퀸즐랜드 QTMP(Queensland Train Manufacturing Program)** 사업 등 총 1,000량 규모의 계약을 끌어내며 현대로템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레일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조일연 본부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입학 당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매력을 느껴 프랑스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순히 언어 자체보다는 그 언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으며 대학시절 활동 중 현재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재학 시절 저는 관심이 생긴 분야는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학생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호기심을 책상 앞에서만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직접 파리로 건너가 현지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험이 현재 제 업무에 가장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습니다. 언어의 경우 강의실에서 배우는 정적인 글자와 실제 삶의 터전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동적인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리 현지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화적 충격들은 훗날 현대로템에서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기술적인 협업을 진행할 때 단순한 통역을 넘어 그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역량으로 작용했습니다.

Q3. 현대로템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프랑스 대사관 경제상무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력을 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아 지인 중 한 명을 추천하려다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Q3-1.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사업본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의 철도사업은 약 40개국을 상대로 현재까지 52,000량이 넘는 물량을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인 모로코 사업과 호주 사업의 경우 오는 2030년 개최될 FIFA 월드컵과 2032년 브리즈번 하계 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도 궤(軌)를 같이 합니다***. 철도차량 사업은 기본적으로 B2G 비즈니스 즉 정부 또는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객 국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열차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기술뿐 아니라 △계약△의사소통△협상 역량이 요구됩니다.

Q4. 철도 산업이 자동차 및 항공과 같은 다른 모빌리티 산업과 비교했을 때 갖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철도는 자동차나 항공과 비교했을 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돼 있어 국가의 동맥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자 인프라 사업이라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다른 산업군에 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Q5. 모로코와 호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관계 형성△상대 국가의 문화△의사결정 방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언어에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Q5-1.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고객 설득△신뢰 쌓기△지속적인 교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모로코 측에 한국의 전동차를 제안했을 당시 모로코 측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전동차 시스템을 주로 사용해 왔던 모로코는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꾸준히 모로코를 오가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과 효율성을 그들의 언어와 논리로 끈질기게 어필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이 통했고 역대 최대 수주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Q6. 다양한 국가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요소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회사 생활은 결국 말을 통해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반드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내뱉는 논리는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입니다. 논리라는 뼈대에 문화적 이해라는 살을 붙일 때 비로소 상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완성됩니다.

Q7. 이공계 중심의 산업 현장에서 언어 전공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술 전공자들에 비해 인문학 전공자들이 더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언어 전공자는 고객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 더 유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능력과 더불어 △계약△무역△재무 등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언어를 최상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어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전문성을 반드시 함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직접 부딪쳐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통해 얼마나 넓은 세상을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NIF(New Intercity Fleet):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시드니와 그 주변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한 신형 2층 전동차 도입 사업.
**QTMP(Queensland Train Manufacturing Program):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브리즈번 지역의 철도 수요 증가와 다가올 2032년 브리즈번 하계 올림픽에 대비해 추진한 대규모 전동차 제작 프로젝트.
***궤(軌)를 같이하다: △방향△생각△행동이 서로 비슷하거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란히 가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